



2024. 2. 6 (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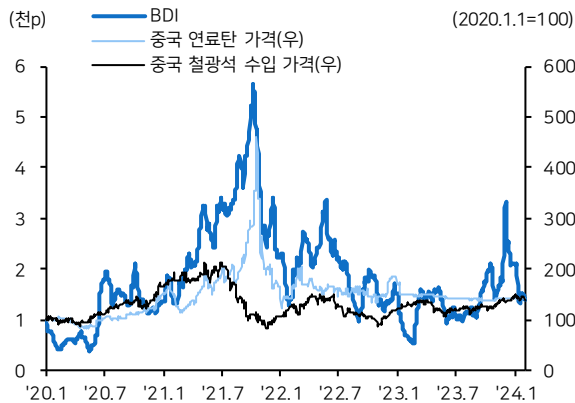
조선/기계/운송 Analyst 배기연 RA 오정하

02. 6454-4879
kiyeon.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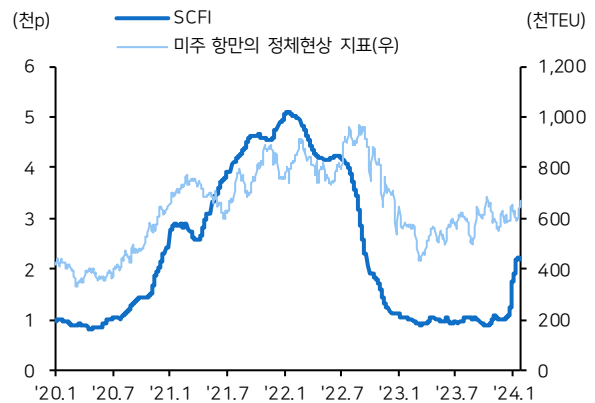
02. 6454-4873
jungha.oh@meritz.co.kr

국내의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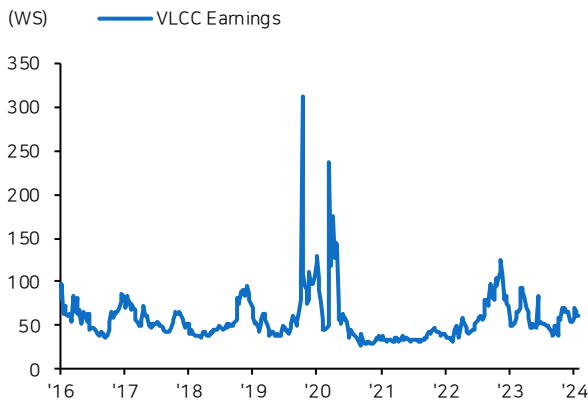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1,436.0p(+29.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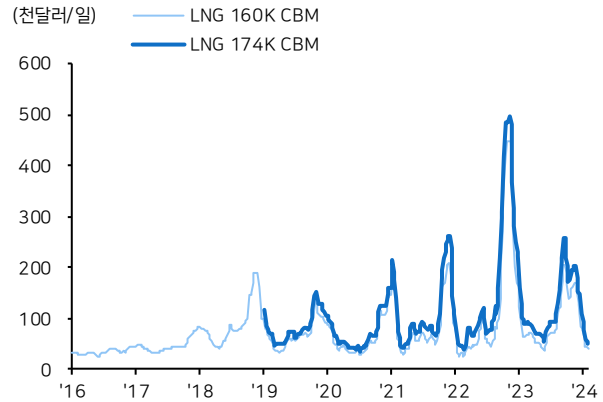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2,217.7p(+16.9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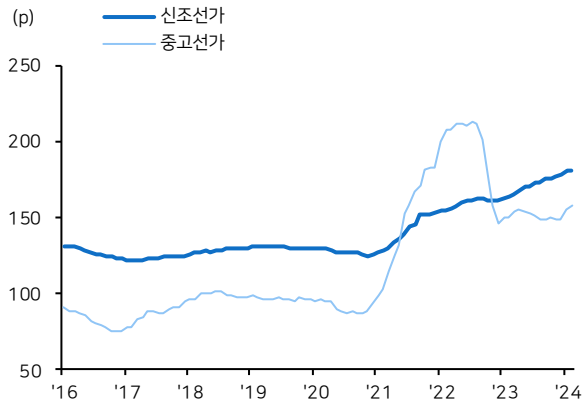
VLCC Spot Rate 61.3p(+0.1p WoW)



LNG Spot 운임 41.0천달러(-1.5p WoW)
51.0천달러(-1.5p WoW)



신조선가 181.3p(+0.1p WoW)



중국 내수 후판가격 572.0달러(-1.0p DoD)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Evangelos Marinakis doubles up on liquefied CO2 carrier newbuildings at Hyundai Mipo

현대미포조선이 지난주 공시한 LCO2선 2척의 선주는 Evangelos Marinakis로 보도됨. 추가 2척 주문인데, 암모니아 DF인 22,000CBM급 선박으로 척당 7,640만달러 수준임. 처음 주문했던 2척은 척당 약 7,250만달러에 계약했다고 알려짐. 2026년 11월 까지 인도될 예정임. (Tradewinds) (<http://tinyurl.com/2c54nzsp>)

선박 힘신는 한화오션, 상선용 블록 공장 매입

한화오션이 선박용 블록의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 추가로 공장 부지를 매입했다고 보도됨. 한화오션의 선박 구성품을 제조하는 자회사 한화오션에코텍이 순천과 광양 소재 공장 부지 및 생산 설비 등 총 1,050억원 규모 비유동자산을 취득했다고 언급됨. 한화오션은 자본조달을 위해 1월 한화오션에코텍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했고, 상선용 블록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전문 생산 기지를 구축할 예정으로 언급됨. (서울경제) (<http://tinyurl.com/4aytwkdt>)

해진공 · 현대글로벌비스, 자동차운반선 4척 건조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현대글로벌비스가 LNG DF PCTC 4척 건조를 위한 업무협약을 6일 체결할 계획으로 보도됨. 중국 조선소가 2027년 상반기 2척, 하반기 2척을 인도할 예정으로 알려짐. 10,800CEU급 선박으로 현재 선대 및 오더북 중 가장 큰 규모로 언급됨. (뉴시스) (<http://tinyurl.com/3bfj2exf>)

Red Sea or refineries? Which will be decisive for product tankers, asks SSY

정유화학제품선 시장에는 화재와 악재가 하나씩 있다고 보도됨. 홍해 갈등이 지속되며 12노트로 사우디-로테르담 우회항로 운항 시 기존대비 16일이 더 걸린다고 알려짐. 이에 eco MR탱커 운임은 한달 새 22% 상승했다고 언급됨. 그러나 나이지리아, 멕시코 등 신규 정제 설비가 연중 가동되며 대서양 지역 수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알려짐. (Tradewinds) (<http://tinyurl.com/msx5en7f>)

Clarksons raises concern over LNG rates as 2024 newbuilding deliveries set to smash record

Clarksons가 2024년 많은 LNG선 인도가 예정됨에 따라 최근 운임 하락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보도됨. 현재 선대의 26%에 해당하는 2,940만CBM이 2024~25년동안 더해질 예정으로 알려짐. 그러나 신규 프로젝트 가동, 톤마일 5~6% 증가, 선속 추가 하락 등 요소가 운임 하방을 제한할 수 있다고 언급됨. (Tradewinds) (<http://tinyurl.com/y3efzxbd>)

싼 가격에...배민, 중국 조리로봇으로 눈 돌린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자회사 비로보틱스가 서빙·배달에 이어 조리로봇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가운데 값싼 중국 로봇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보도됨. 로봇 산업 보호책이 미비한 틈을 타, 중국산 서빙로봇이 국내시장을 잠식한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알려짐. 현재 외식업 매장에 적용을 추진하는 조리로봇은 재료와 소스를 섞는 등 단순 업무를 수행해 성능보다 가격이 중요한데, 중국산 로봇은 국내보다 30% 가량 저렴하다고 언급됨. (MTN뉴스) (<http://tinyurl.com/f4ptx8kr>)